

바다, 연기, 그늘

근 몇 년간 상실과 그리기의 문제를 연관하여 다루며 양자의 의미를 모색해 왔다. 이는 상실한 것에 대한 태도를 형식화 하며 그리기의 의미를 숙고하고, '어떻게 그릴까'의 문제를 고민하며 부재한 것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일이다. 최근에는 '세대'라는 새로운 화두를 품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대'는 아이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할 때까지 소요되는 약 30년의 기간을 이르기에도 하고, 같은 시대에 살며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사람의 범위를 뜻하기도 한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세대는 한 생물이 생겨나 생존을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뜻한다. 즉 '세대'란 개인으로부터 그가 속한 가족, 나아가 문화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집단을 경험과 시간에 따라 규정하는 단위인 것이다. 경험을 통해 형성된 관점의 공유와 단절,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포용과 배제,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주체의 심리적 반응 등이 이 단어의 안팎을 맴돌고 있다. 그러므로 '세대'라는 다층적인 시간성을 조망하는 일은 곧 세계를 향한 관점의 반복적인 생물을 조망하는 일이다. 이 지점에서 '세대'는 '사라짐'에 천착해온 기존 작업의 관심사와 연결된다.

작업의 소재는 세월호 사건 이후의 일상과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가족의 죽음 등 사회적/개인적 상실의 경험을 아우른다. 이를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닥친 사건', '다음 세대에는 이미지로만 전해질 것들', '사라져가는 앞선 세대'에 관한 작업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가깝거나 먼 일을 다룰 때 적절한 윤리적 거리를 가늠하고, 그 거리를 유지하며 그리려 한다. 어떤 그림들은 너무 애둘러 그린 나머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보이는데, 그러한 그림의 쓸모와 의미를 고민하는 일 또한 작업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근작의 소재를 관통하는 심상을 '바다, 연기, 그늘'로 축약해볼 수 있다. 그것들은 끝없이 변화하거나 이내 사라지는 비정형의 존재들이다. 각각의 비정형성은 서로 다른 원인이나 조건—기조력이나 소실되는 무엇, 혹은 광원—에 의해(緣起) 구현된다. 순간을 못박아 느리게 되짚어낸 그림은 오히려 고정된 형상이 없는(無相) 그들의 속성을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그림 속 바다, 연기, 그늘은 무상(無常)함의 메타포일 수 있다.

바다, 연기, 그늘은 도처에 있으므로 서로 다른 장소와 사람, 사건을 연관 지어 바라보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나는 물놀이하는 어린 아이들과 나에게 서로 다를 바다의 의미를 짐작해보고, 다른 해의 같은 날 벌어진 두 사건을 함께 살펴 '수많은 죽음'과 '누구도 죽지 않음'의 차이를 절감하는 한편, 범국가적 종교 상징의 소실과 한 무명 종교인의 죽음을 견주어 본다. 그리기의 시간은 서로 다른 소재 간의 관계와 의미를 묻고 곱씹어보는 느린 시간이 된다.

무심하거나 담담한 인상의 그림들은 자신의 의미를 주장하거나 무언가를 전달하려 하기보다 그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그림들은 끝내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보는 이에 따라 해소되지 않는 찌뽀함, 혹은 거듭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

임재형은 개인적/사회적 상실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며 '사라짐'과 그리기의 문제를 연관 지어 탐구한다. 작가는 남겨진 것 앞에서 부재한 것을 짐작해보므로써 '사라짐'을 인식하는데, 이는 분명한 자국을 남기면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모호함을 쫓는 그리기의 과정과 다른 듯 닮아 있다. 회화와 판화를 전공했다. 그림을 통해 특유의 시각적 거리감을 구현함으로써 부재한 것을 향한 심리적, 윤리적 거리를 다뤄보려 한다.